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나뭇잎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유진영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나뭇잎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유 진 영

나뭇잎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유 진 영

인 준 서

유진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자연의 의미는 본래 생명을 뜻한다. 즉 생겨나서 자라고 나약해져서 소멸하는 것이 자연이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활한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의 의지나 요구와 상관없이 형성되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물질적 편이와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인간 소외 현상과 인간성의 상실 등,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물질적 가치에만 매달리는 현대 사회와는 달리 순수했던 이전의 자연환경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다.

본인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의 형상을 자연물에 자연스럽게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인간이 영위해야 할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2002 - 2004 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에 대한 연구로, 나뭇잎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작품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동·서양의 자연관과 예술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작품의 표현 방법에서는 잎맥 이미지에 인간의 형태를 도입한 표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 개별 작품 설명을 위해 작품 사진과 내용을 첨부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 | |
|--------------|---|
| II. 본론 | 2 |
|--------------|---|

| | |
|-------------------|---|
| 1. 작품 형성의 배경..... | 2 |
|-------------------|---|

| | |
|--------------------|---|
| 2. 작품의 표현 방법 | 6 |
|--------------------|---|

| | |
|----------------|----|
| 3. 작품 분석 | 10 |
|----------------|----|

| | |
|--------------|----|
| III. 결론..... | 16 |
|--------------|----|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Leaf · Life I10

6050×1220×1400(mm)

폴리에스텔필름(PET) 1800m, 철 파이프, 2003 - 2004

【작품 2】 Leaf · Life II12

5430×1860×2200(mm)

폴리카보네이트 필름(PC) 반투명 / 두께: 0.25mm , 철 파이프, 2004

【작품 3】 나뭇잎에서 사람을 만나다.....14

나뭇잎 크기, 마른 나뭇잎, 2002

I. 서 론

인간은 자연 환경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변화하며 다양한 실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 자연환경으로 돌아가며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자연 속에서의 반복되는 삶을 물려주는 존재이다.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자연의 의미는 정신적 평화와 여유를 주고, 에너지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그 중 나뭇잎은 본인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연물이다.

이와 같은 감흥을 일으키는 자연이란 본인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과거의 인간은 자연과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은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개는 자연과 인간과의 화합과 조화, 친화관계를 바탕으로, 자연물 중 나뭇잎을 표현하고, 거기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형태를 제작하는 것이 연구목적이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작업과정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삶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본 논문에서 필름지와 나뭇잎으로 제작된 작품 3점을 제시하고, 작품 개요 및 표현방법에 대해 서술하여 작업의 주제가 어떻게 작품화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의 배경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자연이 가진 장엄함과 아름다움, 신비로움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대립과 수용을 반복하며 살아왔다.

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건물 사이로 뜨는 해와 달,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 아파트 단지 내에 흐르는 하천과 나무 등이 전부였으며 자연은 그저 도시 생활의 일부분이자 관찰의 대상일 뿐, 자연물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간의 산속 작업실에서의 생활은 자연 체험의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TV나 컴퓨터가 없는 생활 속에서 자연은 본인에게 말벗이자 유희로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을 매우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감탄과 신비로운 질서에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자연에 속한 존재로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자연은 물질문명의 가치관에서 자기중심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의 자연환경에 대한 불만과,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소외감과 비인간화에 대한 문제의 해결점이 자연과의 일체화 혹은 자연과의 감정 교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자연과의 친화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과거 동·서양의 자연관과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동양에서 자연의 의미는 ‘거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생명체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즉 동양의 자연은 인간의 경험과 인식으로 판단되는 대상이 아닌, 우주의 본체와 근원적인 원리를 갖춘 존재로서 자연을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거대한 자연을 동경하며, 자연과 일체화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한편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이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하위개념에 놓고 자연을 관찰 분석하고 탐구하였다. 이렇듯, 서양의 자연은 인간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서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자연관의 차이는 예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양에서 자연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자연현상을 파악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지각하면서부터이다. 자연에 관한 서양의 지배적인 생각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을 지배하고 사용하는 주체라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듯이¹⁾ 서양 예술에서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관찰 분석된 문화적 자연으로서, 자연 그 자체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진 자연경관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동양에 있어서 자연의 개념은 만물의 기원으로서 영원무궁하다. 동양의 자연미는 단지 객관적 물질적 감각적 형상으로서의 외적 자연대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널리 천·지·인 3재(才)

1)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3, p.56

를 통해 도가 작용하는 성능으로서의 무위자연²⁾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 도에 순응하고 이와 일체가 되려는 인류의 미에 바탕을 두고 예술 활동을 통해 이를 구현할 때 예술미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미는 인간과 대립적인 객관적 대상의 미가 아니라 무위자연의 도에 순응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인간의 미적 감동에 근원을 둔 미이다. 한편 예술미는 그러한 자연미와 인간과의 사이의 매체 내지 통로로서 존재하게 되며, 결국 예술미는 자연미와 동일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³⁾

이와 같이 고대 동양에서는 무위자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의 융합을 기본정신으로 삼은 노장사상이 산수화의 배경이 되었다.

장자는 ‘천지가 광대하다하되 그 이루어짐은 고르고 만물이 무수하다 하되 그 다스림은 한결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천지만물의 일부분으로서 자연 안에서 평등하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생태계의 생명체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타자의 생명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된다. 또한 노자는 ‘인간은 땅의 법칙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에 따르고 하늘은 도의 법칙에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연은 천지만물을 생성하고 운동 변화케 하는 총 원리이고, 도는 천지만물의 근원으로서 모든 운행질서는 자연을 따른다는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즉, 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연이 운영하는 섭리 안에서 존재하는 일부분으로서 인간의 참된 삶은 자연을 근본으로 삼고 이상향으로 여기며, 도와 자연의

2) 인간의 힘을 가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의 순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 류명걸, 서양과 한국의 미와 예술, 형설출판사, 2000, p.3

법칙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동양의 산수화가들은 자연 속에서 생을 사는 것이 도를 알고, 도를 바탕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의 섭리를 깊이 관찰하고 자연과 더불어 생을 영위하며 이에 순응하고 합치하려는 태도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산수화에 나타난 노장 사상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을 친밀하고 조화로우며 인간의 정미가 풍부한 관계이자 정신적인 관계라고 간주하였으며⁴⁾ 인간의 참된 삶은 자연과의 합일과 조화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본인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자연관이, 과거 산수화의 바탕이 된 동양의 자연관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자연관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생명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찾고 그것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작업의 목표가 되었다. 이는 동양의 자연관과 같이, 자연과 인간이 친화관계를 유지하며 합일을 추구함과 같은 관점을 지닌다.

4)김인환, 동양 예술 이론, 안그라픽스, 2002, p.140

2. 작품의 표현 방법

인간은 생활환경 속에서 친근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연물에 관심을 갖는다. 본인 역시, 지난 작업실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나뭇잎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소재를 선택하였다. 본인은 나뭇잎의 다양한 종류와 크기, 완벽한 형태미에 매료 되었고,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상과 모양, 생명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나뭇잎의 잎맥은 1개의 맥이 2차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맥이 다시 2차로 나누어지는 유기적 형태로, 누구나 자연물임을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나뭇잎에 대한 관심은, 나무에서 떨어진 잎을 주워 다가 그 위에 인간 형태를 드로잉하거나, 잎맥만을 남겨놓고 투각하는 행위 등으로 발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작품도 그 당시 만들었던 작업의 일부분 이자, 발전된 표현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주된 내용은 자연과 인간의 친화관계를 표현한 것이지만, 작품에서 나타난 나뭇잎 형상은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표현만이 아닌, 나뭇잎을 통해 본인이 느꼈던 심상과 이미지가 작품 전체에 반영되었다.

작품에 표현된 나뭇잎 이미지는, 가을과 겨울의 잎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품 3】은 가을과 겨울에 떨어진 나뭇잎을 모아, 직접자연물을 작품화한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을은 생명이 다한 나뭇잎들이 힘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계절로서, 뻣뻣하게 말라 생동감을 잃은 형상이다. 이와 같은 나뭇잎은 인간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앙상하고 쓸쓸한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잎맥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면서, 인간의 형상이 자연물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 나타난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 대상이 아닌 자연의 일부, 혹은 자연물과 평등한 존재로서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표현방법으로는 인간의 형상과 잎맥을 겹쳐 표현하거나 여러 장의 필름지를 포개는 방법을 통하여 두 대상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였다.

【작품 1】에서는 침대 모양의 철 프레임 위에 잎맥 모양의 PET 필름을 300겹 축적함으로써, 잎맥과 인간의 형태가 결합된 식물 인간상을 표현하였다. 1장의 필름마다 인간과 잎맥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였으며, 침대 밑에는 투각되고 남은 필름 조각을 수북이 쌓아 두었다.

주요 공간인 침대는 잠을 자는 곳, 편히 쉬는 곳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인체 형상은 발끝을 모은 소녀로, 실제 인간보다 마르고 긴, 나약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 소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몸으로서, 자신의 종을 생성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능력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소녀의 둥근 머리 모양은 나뭇잎의 일부분처럼 표현하여, 식물 인간상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PET필름으로 제작된 식물 인간상은 얼음 같은 차가운 이미지로서, 필름지를 잎맥 모양으로 투각하여 표현하였다. 침대 위의 식물인간은 흔적만 남아있는 죽음, 혹은 몸의 일부가 사라져 버린 존재를 의미하고, 침대 밑의 무덤은 침대 위에서 소진된 잔해로서, 죽음 이후의 이미지와 재생성의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2】는 5430×1860× 2200(mm) 크기의 육면체에 잎맥 형상을 극대화시킨

구조물이다. 관람객이 구조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서 커다란 잎맥이미지 안에 인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도입 된다.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이 인간의 모체로서 공생적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간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제 2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여, 전시장에 온 관람객들이 반드시 이 구조물을 통과하도록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관객 참여 작품으로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의미는 빈 공간이다. 전시장에 들어온 관람객이 비어있는 잎맥 작품을 바라보며 인간과 자연을 별개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관람객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관람객이 작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 속에 들어간 인간이 자연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의 모든 사물을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작품 안에 관람객이 있고 작품 밖에도 관람객이 있는 경우로서, 작품 밖의 관람객은 작품 안의 관람객을 통하여, 작품 안의 관람객은 작품 밖의 관람객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을 함께 보게 된다는 의미로서 공존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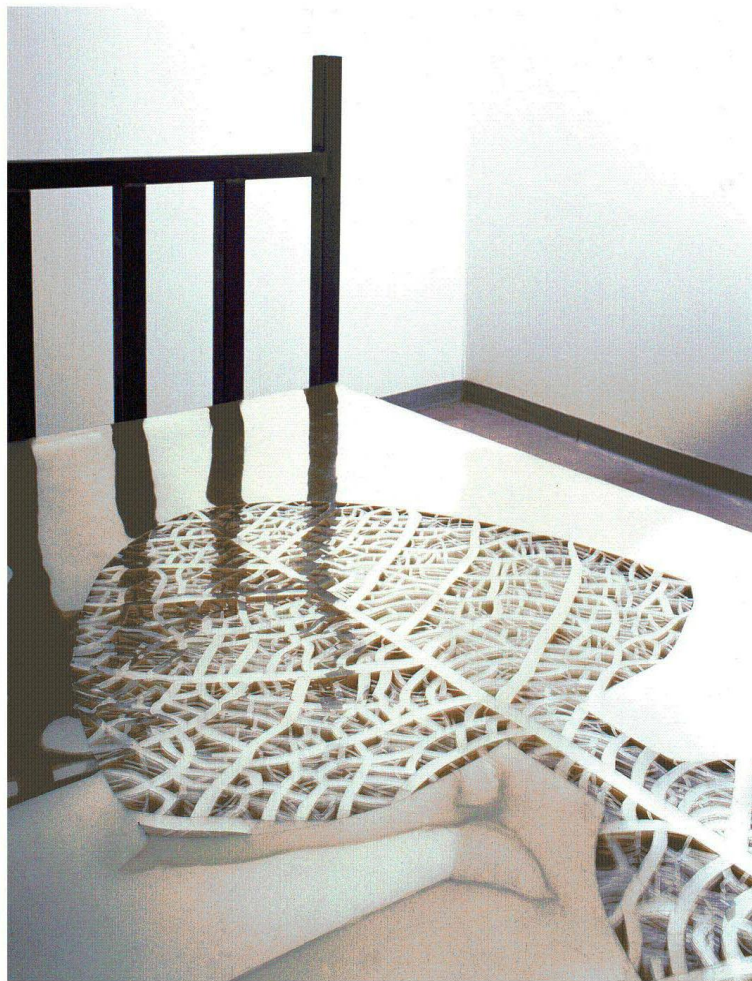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투각된 잎맥 모양의 공간은 육면체로 양쪽에 두 개의 문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문은 공간의 폐쇄성을 상징한다. 문이 열렸을 때 이 공간은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는 막힌 공간이 되는 것이다. 막힌 공간 속의 관람객은 사망의 뻣뻣한 잎맥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받아들이게 된다.

【작품 3】은 2년 동안 보관되어 온 나뭇잎을 투각한 작품으로, 16점을 아크릴 액자에 끼워 전시장의 벽면에 설치하였다. 실제 나뭇잎에 투각된 인간의 형상은 움크린 모양, 날아가는 모양, 서 있는 모양 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형상을 나뭇잎에 작게 투각하였고, 인간의 형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의 애매함은 나뭇잎 안의 인간 형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안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연 안에 인간은 일부이고,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 특징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뭇잎은 주맥과 잔맥이 뚜렷하게 보이는 쪽으로 설치함으로서 나뭇잎의 생명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나뭇잎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계절에서 채취한 잎을 통하여 나무가 주는 사계절의 풍경과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다.

3.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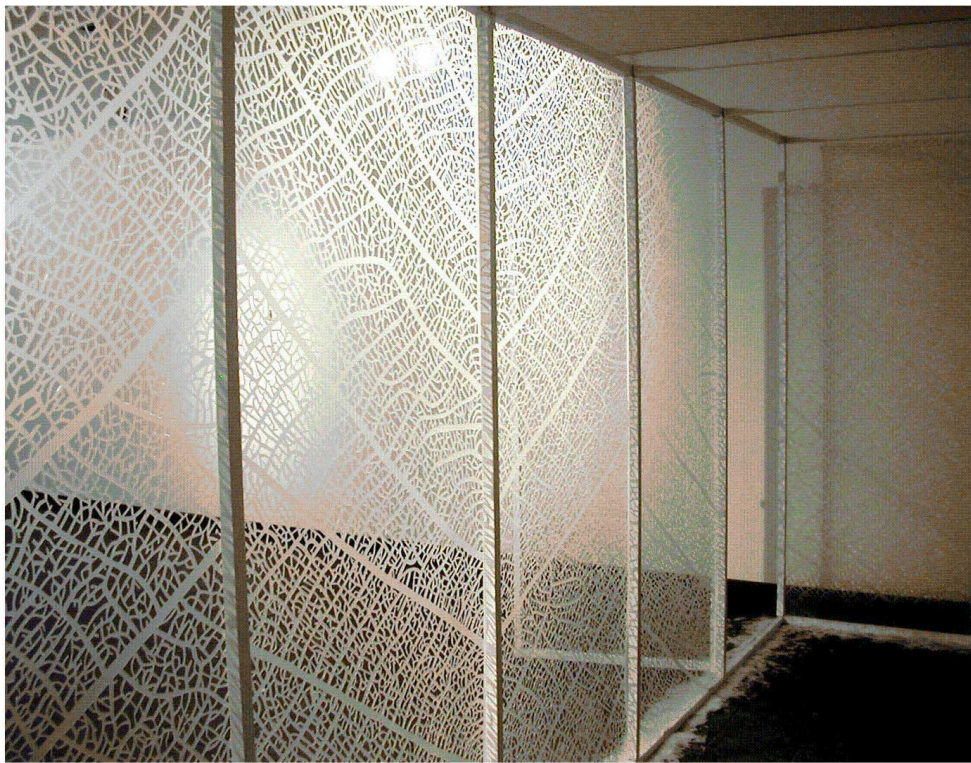


【작품 1】

Leaf · Life I

【작품 1】 Leaf · Life I

- 규 격 : 6050×1220×1400(mm)
- 재 료 : 폴리에스텔필름(PET) 1800m, 철 파이프
- 제작 방법: 2003 - 2004
- 제작 방법: · 길이 6m의 PET필름 300장을 식물인간 모양으로 오려낸다.
주맥 부분은 300장을 오려내고, 잔맥 부분은 PET필름의 장수를 줄이면서 오려낸다.
· 두께 50mm 4각 파이프를 6050×1220×1400(mm) 크기의 침대 모양으로 조립한다. 그리고 그 위에 투명 아크릴을 깔아 설치 한 후, PET필름 300장을 침대 위에 펼친다. 그 후, 투각 되고 남은 비닐 조각들을 침대 밑에 수북하게 설치한다.
- 내 용
잎맥과 인간의 형태를 결합한 식물 인간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생성과 변화, 소멸한다는 의미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생명이 다한 가을 나뭇잎의 앙상하고, 쓸쓸한 느낌이 인간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필름지를 이용하여 얼음 같은 차가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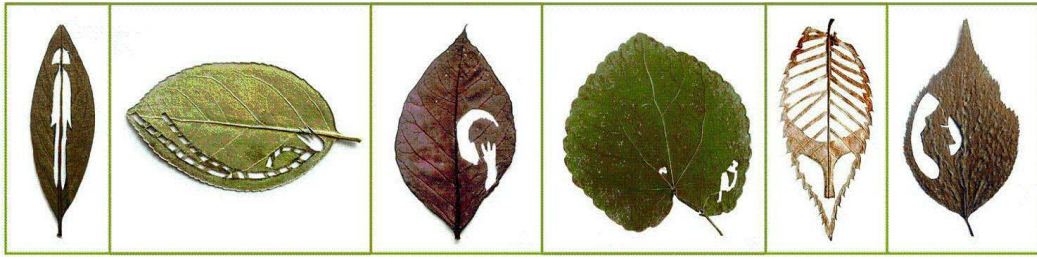
【작품 2】

Leaf · Life II

【작품 2】 Leaf · Life II

- 규 격 : 5430×1860× 2200(mm)
- 재 료 : 폴리카보네이트 필름(PC) 반투명/ 두께: 0.25mm , 철 파이프
- 제작 방법: 2004
- 제작 방법: · 두께 30mm 짜리 4각 철 파이프로 5430×1860× 2200(mm)의 육면체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양쪽에 문을 조립한 뒤,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 5430×1860(mm)의 PC필름 16장을 앞맥 무늬로 투각 한 뒤, 철파이프에 한 장씩 붙여 고정한다. 이 앞맥 무늬는 2장이 한 쌍이 되는 무늬로, 8쌍이 설치된다.
- 내 용

겨울나무에 간신히 매달린 나뭇잎과, 땅에 떨어진 나뭇잎 위로 쌓인 눈을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으로서, 인간은 반드시 자연 속에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3】
나뭇잎에서
사람을 만나다

【작품 3】 나뭇잎에서 사람을 만나다

- 규 격 : 나뭇잎 크기
- 재 료 : 마른 나뭇잎에 칼로 투각
- 제작 년도: 2002
- 제작 방법: 2년 동안 보관한 마른 나뭇잎에 사람의 부분(얼굴, 몸 등 신체의 일부분)을 드로잉 한 후, 칼로 투각하였다.

· 내 용

이 작품은 나뭇잎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발견하고, 발견된 인간을 통해서 다시 자연을 떠올리는 작품이다.

실제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말라 가루가 될 때, 그 안에 투각된 인간도 함께 사라지게 됨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Ⅲ. 결 론

본인은 지난 산속 작업실의 생활과 동양의 자연관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에 대한 관심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작업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내용은, 나뭇잎을 통하여 느꼈던 심상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친화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나뭇잎에 인간의 형상을 도입한 표현으로 발전하였으며, 자연물과 인간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작업의 주된 표현은 인간의 형상과 잎맥 모양을 겹치거나, 여러 장의 필름지를 포개는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의 형상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자연물을 통한 표현 이외에도 다양하고 실험적인 표현과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조형세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 이미지를 토대로 다양한 재료적 표현과 깊은 생각들로 발전적인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인환, 동양 예술 이론, 안그라픽스, 2002

류명걸, 서양과 한국의 미와 예술, 형설출판사, 2000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 아카넷, 2003

이강수, 노장철학의 자연관, 도서출판 모색, 1996

한홍섭, 장자의 예술정신, 서광사, 1991

김학주, 세계의 사상 21, 을유문화사, 2000

김성기,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개, 1984

Herbert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유문화사, 1991

배창빈,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은유적 표현연구, 세종대학교 출판부, 2001

노동목,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한 표현연구,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2

ABSTRACT

Study of Life Image Grounded by Union of Nature and Human

- Centering around My Work -

Yu, Jin Young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eaning of Nature originally means life. That is, nature comes out, grows, weakens and vanishes and nature lives with vitality. Thus, nature is formed without regard to intentions or demands of human being and lives with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by itself. On account of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human enjoys material convenience and comfort but life is getting impoverished; estrangement of human being and forfeiture as a human being. In this reality, human yearns and thirsts for former innocent nature environments unlike modern society which clings to material values.

Thinking that the way to lift up the quality of life is harmonious life of human with nature, I tried to express the importance of life through works which find and unite common life image of human and nature.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works produced between 2002 and 2004 and it is a result which studied life image of coalition with human and nature.

Chapter 1. In introduction, I wrote the object and method of study about the works of nature which was ruined by modern civilization

Chapter 2. In the main subject, with an oriental view of nature, I explaine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and nature and in the expression method of works I described the coalition of life image. I attached pictures and comments of works for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works.

Chapter 3. In conclusion, I summarized contents of the paper and adjusted my view of works.